

7

白川趙氏大同世譜 卷之首

孽望風載竄載馘二帥衛城爰賜兜鍪決勝帷幄密勿良籌効順者誰賊謀是告奮義有人手縛逋盜  
臨危敵愾嶺邑之臣成績雖殊輸忠則均妖氛廓清邦命再昌南樓受俘慶休無彊

赫臨降鷺顧予何力忠良致誠嘉乃曰篤報勞酬功厥有舊典疏封錫壤用示彰善恩禮既洽情志交  
孚永絕偏陂共勉都兪舊德遺昆亦皆萃止

蒼穹可質白水在彼曰忠曰孝無荒無驛苟渝此盟

神其鑑茲

開國功臣趙胖嫡長孫將仕郎前行南部叅奉<sub>臣</sub>

譯 文

조선국왕(朝鮮國王) 신(臣) 이(李) 휘(諱)는 삼가 개국 정사 좌명 정난 좌익 적개 익대 좌리 정국 왕국  
평난 호성 선무 청난 정사 지무 소무 영사 영국 보사 양무공신(開國定社佐命靖難佐翼敵愾翊戴佐理靖國光國  
平難扈聖宣武清難靖社振武昭武寧社寧國保社揚武功臣) 및 자손 등을 거느리고 감히 천지 사직 종묘 산천(天  
地社稷宗廟山川)의 백신의영(百神之靈)에게 밝게 고합니다.

인도려 생각하건대

옛날에 우리 나라는 예의(禮儀)를 근본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교화(教化)의 도리(道理)가 밝고 명분(名分)  
이 혼란하지 아니합니다.

천지(天地)의 강기(綱紀)가 각각 제자리를 찾으니 상하(上下)가 서로 편안하고 은혜와 신의(信義)로 교  
분(交分)이 지극하였도다.

대대로 내려온 교화(教化)가 강쇠(降衰)하고 당론(黨論)이 갈라지니 물처럼 깊어지고 불처럼 뜨거워지고  
질(痼疾)은 고칠 수도 없도다.

과인(寡人)의 몸에 이르러 마침 비운(不運)을 만나니 비록 부지런히 노력해도 운상(倫常)은 날로 어두워  
지도다.

경(鏡) 二 鏡 (一)이란 역적이 있으니 어미 잡아먹는 목소리와 아비 잡아먹는 경수(獍獸)의 창자를 가지고 먼저  
흥언(凶言)을 주창(主倡)하고 사리(事理)에 어긋난 말로 사람을 속였도다.

그가 지위가 높아지고 정사(政事)에 참여하자 때를 타고 바라고 엿보며 백성들을 속일 수 있다 하고 하는  
속일 수 있다고 하였도다.

부합하는 자가 많아져 남몰래 서로 사귀고 맺으니 화심(禍心)이 무르익기는 계묘(癸卯)·갑진(甲辰) 二 癸卯 甲辰  
二 年 無 禮 無 恥 年 無 禮 無 恥 (년 무렴무타)였도다.

더러번 흥서(凶書)를 내걸고 먼저 속이고 현혹시키더니 영남(嶺南)으로 뛴고 호남(湖南)으로 달려가서  
은 못된 것들을 모았도다.

폐족(廢族)된 자와 불만이 있는 자와 어리석은 백성이 그 고임에 빠져서 고래갈고 도깨비같이 앞서다니  
뒤서다니 하였도다.

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 같은 역적을 누누라 절통(絶痛)해 하지 않음이란 그 더욱 아주 흉(凶)한  
무리는 징·성·현·몽(徵·成·賢·夢) 二 徵 成 賢 夢 二 南 泰 徵 李 思 夢 (이)였습니다.

혹은 높은 벼슬에 있고 혹은 왕실(王室)에 연관(聯關)된 자들이 처음에는 난잡한 치수로 어슬리더니 종래  
에는 구부(君父)를 배반하였도다.

안팎으로 서로 화응(和應)하며 배치 포치(布置)를 거의 완성하니 화기(禍機) 二 災 禍 機 (가) 나타나기 작에도  
여러사람이 자주 놀랐도다.

원로(元老)들이 기미를 눈치채어 승은 계획이 먼저 탄로되니 미친 벌떼처럼 일어나 기세(氣勢)가 풍악(風  
雨)처럼 급하였도다.

호곤(湖閫) 二 湖 閫 (을) 잃게 되니 경기도의 읍(邑)들이 이어서 시끄러웠고 순식간에 어찌 될지 모르게 급  
박(危急)하니 안팎이 두려움에 떨었도다.

원웅(元戎)이 응암(應岩)이 떠나가고 장철(杖鉞)이 출사(出師)하니 호랑이 같은 장수(將帥)가 힘을 다하고 막부(幕府)에서는 좋은 재책을 바쳤도다.

왕의 군사는 싸움이 없이 모두 물리쳐 쓸어버리니 잔적(殘賊)은 도망쳤으며 귀양보내거나 참형(斬刑)에 처하였도다.

두 장수(將帥)가 성을 지키니 투수를 하사(下賜)하고 유안(帷幄)에서 승리를 결하니 좋은 재책을 치밀히 세웠도다.

항복해 온 자는 누구나 도적의 음모를 사실대로 고(告)하고 의분(義憤)에 떨쳐 일어난 사람들은 아 손으로 묶었도다.

위급(危急)함에 임하여 적개심(敵愾心)을 보인 것은 영남(嶺南)의 신하(臣下)들이니 공적(功績)은 이룩하고 각각 다르나 충성심을 보인 것은 모두 같았도다.

요사(妖邪)한 기운이 시원하게 맑아지니 나라의 운명이 다시 융창(隆昌)하게 되고 남루(南樓)에서 포도들을 밟으니 경사(慶事)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없도다.

하늘의 노(怒)하심이 내려다가 거두어 올리시니 나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는가 충신과 양사(良臣)이 정성을 다했으니 두렵게 치하할 뿐이로다.

수고로움에 보답하고 세운 공(功)에 대하여 감은 것은 옛날 법대로 하는 것이니 봉작(封爵)을 내려서 학한(學韓)표창(表彰)을 보이는 것이로다.

은혜(恩惠)와 예의(禮儀)가 흠족하여졌고 정(情)과 뜻을 진심으로 주고 받았으니 영원히 편(便)됨이 없다. 복하고 함께 화합함을 힘쓸지로다.

옛 조상들의 덕이 자손에게 끼쳐서 또한 모두 모였으니 푸른 하늘에 맹세하고 흰 물에 맹세하노라 충성하며 효도하며 거칠어짐 없음을 지며 무너짐이 없음을 지어다. 이 맹세 변할 수 있겠는가 신명(神明)이 이

開國功臣趙胖嫡長孫將仕郎前行南部叅奉臣趙 輝 壁

十五、詩文

1、贈趙相胖

圖隱鄭夢周

重陽佳節菊花風  
俯首沉吟興不窮

重陽佳節이라菊花피는季節에  
벗과 마주하여詩를 읊으니 無窮한 興趣가 이네

可笑他心通未得  
繩床柱費十年工

오랜 歲月을 벼슬아치의 허물을 바로 잡기에  
보낸다고 남들이 웃어대들 어이 상관하라

2、自吟

耕隱堂趙瑞康

乘閒勝日到村家  
十里芳郊萬樹花

화창한 날씨에 틈을 내어 村家를 찾아드니  
山과 들에 온갖 꽃이 滿發하고나

半醉騎驢無事客  
泰平春興自堪誇

한가한 나그네 얼른히 醉하여 나귀를 타니  
泰平하고 다사로운 봄날의 興趣누를 길이 없고나

3、佳亭詩

安平大君 匪懈堂 李瑢

依山茅屋裡

산기슭에 지은 초가집

偏好主人心

主人의 마음 좋기도 하구려

日月自朝暮

歲月은 흘러 가건만

江山無古今

江山은 옛과 다름 없네

軒外花薰酒

외밖에 술과 꽃 향기롭고

聰前風入琴

바람결에 거문고 소리 들린다

知是塵世上

알리로다 이 티끌 세상에

眞樂在家林

참된 풍류 이집에 있음음을

4、佳亭詩

學易齋 鄭麟趾

書圖依然更就看

다시 보아도 그림이 분명한데

長堤別墅對青山

佳亭 농막은 푸른 산과 마주 하였네

霜添柿栗三秋暮

감과 밤에 서리 앉으니 가을은 깊어

雨浥桑麻十畝間

비에 젖은 병발 삼밭 열이랑

南浦歸帆堪縱目

남쪽 포구에 돌아 오는 돛배 가물거리고

後園疎竹足開顏

대숲 우거진 후원에서 반겨주네

知君早有江湖性  
乞退他年自在閑

그대 진작부터 山水에 뜻있음을 알아  
작년에 벼슬길 물러나더니 한가 하구려

(註: 長堤 || 富平의 古號요 佳亭은 富平에 있다.)

5、栗原次 武夷棹歌韻

重 峯 趙 憲

天成老嶽闊精靈  
嶽下泉流步步清

自然으로 된 큰山에 神靈스런 정기 감도는데  
山 아래로 흐르는 샘물은 갈수록 맑고나

行到栗原奇勝處  
武夷須續棹歌聲

先祖님 사시던 栗原에 오니 景致는 奇勝한대  
山中에서 古詩음은 소리 은은하고너

6、池 塘

重 峯 趙 憲

池塘에 비 뿌리고楊柳에 너기  
인제

池塘에 비 뿌리고 楊柳에 안개 끼었는데

沙工은 어데가고비비만미였는  
고

沙工은 어데가고 빈배만 매였느나

夕陽에 짝일은갈매기는오락  
가락하노매。

夕陽에 짝일은갈매기만 오락가락하느나。

7、閑居即事

樂靜 趙錫胤

世間萬事已亡羊  
閑戶端居靜味長  
朝旭入簷堪炙背  
冬菹出甕可充腸

世上만사 시끄럽고 어려운 때에는  
집에 있어 바르게 사는 것이 조용한 기분으로 으뜸이라  
아침햇빛 처마에 들때 시장기 달래기 위하여  
겨울에 담은 김치를 독에서 꺼내 배를 채우네

8、偶吟

白野 趙錫周

城下蝸廬是我家  
城隅薄土即生涯

城아래 작은農簷은 나의 집이고  
城모퉁이 메마른 땅은 내 生活의 터전이다

官衙已納欣無事  
公糴勤求患不多

城을 管理하는 稅金은 이미 바쳤으니 편안하고  
나라에 바치는 國食을 부지런히 구하니 근심이 적고나

曲浦波恬魚產子  
前山雨足蕨抽芽

구부러진 여울에 물결은 조용하여 고기는 알을 낳고  
흙죽히 내린 비로 앞산의 고사리 싹이 움트네

閑居飽得江湖趣  
萬戶三公莫此過

한가로이 배부르게 사는 것이 이世上趣味로는  
高官大爵과 百萬長者라도 여기에 따르지 못하리

(白野集參照)



# 十六、世德文獻

## (一) 記

### 1、始祖恭和公諱之遴記

趙之遴白州銀川縣人有吏幹性嗜酒日夜娛樂穆宗朝拜吏部侍郎知銀臺事時以朋比乾沒譏之然視金諾李周禎輩有間顯宗二年以左僕射叅知政事卒輟朝三日諡恭華。(高麗史 列傳卷七)

## 譯 文

조지린(趙之遴)은 백주는천현(白州銀川縣) 사람으로 행정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성품이 술을 좋아하여 밤낮으로 즐겼다. 목종(穆宗) 조에 이부시랑지은대사(吏部侍郎知銀臺事)를 배수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불신을 지어 요행으로 이득을 얻는다고 비난을 하였으나 김락(金諾)과 이주정(李周禎)등과는 달랐다.

현종(顯宗)二年 좌복야참지정사(左僕射叅知政事)로 있을때 돌아가니 나라에서는 조희를 드일간 거두고 시호를 공화(恭華)라 내렸다.

### 2、始祖神主奉安祭文

維 歲次辛未十月庚辰 三十一代孫 昌錫 敢昭告于

顯 始祖 高麗金紫光祿大夫左僕射諡恭和公府君

顯 始祖妣 貞敬夫人 氣序流易 時維小春 伏惟 有德必報 載在禮典 彌阿之陽  
 廟宇新展 嗚呼痛哉 庚寅之亂 國土分斷 嗟唏長嘆 莫往莫來 由是闕祭 不勝悲憤  
 白川后裔 鳩財聚誠 乃建是廟 設壇奉安 慕義若嶠 報祀來今 尊靈降作 庶幾降格  
 謹以清酌 奠獻式陳 明禋 尚 饗

譯 文

배는(禮紀四千三百二十四年) 신미년 十月 초하루 경진일에 三十一대손 창석(昌錫)은 감히 홀륭하신 시조  
 고려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좌복야로 시호 공화공 할아버지와 홀륭하신 시조할머니께 밝게 고하니  
 다 절기가 바뀌어 때는 가을입니다. 생각하옵고  
 덕이 있으면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예전(禮典)에 실려 있어 미아리 양지바른 곳에 사우(祠宇)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오호 절통하도다 六·二五동란으로 국토가 분단되니 길게 탄식만 하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여 이때문에

사를 만들지 못하여 슬프고 한스러워 견딜 길 없었습니다.  
 배척의 후손들이 재물과 정성을 모아 이에 모당을 세우고 제단을 설치하여 시조후를 봉안하나이다. 사모하는

뜻이 높음은 산과 같아 보답하는 재사를 이제 거행하오니 존령(尊靈)께서는 감람하시어 가까이 이르소서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차려 의식을 갖추고 정결히 재사를 드리오니 홀륭하시옵소서

3、文貞公諱庸記

世宗六年甲辰六月辛未判右軍都摠制府事致仕趙庸卒庸慶尚道眞寶縣人也中高麗甲寅科授

典校注簿三司都事出爲雞林府判官府有未收國貢甚多吏民受弊販營庫所儲魚物以充之又有豪家奪民魚梁恃勢肆橫官不能禁庸至則差發將吏收捕治之入爲司憲持平歷成均司藝禮曹摠郎我太祖卽位授諫議大夫遷成均大司成經筵侍講官陞刑曹典書以事免國學生員二百餘人上書請起庸爲師特拜檢校漢城府尹兼成均大司成遷藝文提學禮曹判書藝文館大提學皆兼成均大司成及世子賓客上覽經史有疑處輒使經筵官就其第質問前後賞賜屢至庸自少力學博通經史尤精於性理之學爲世儒宗學者仰若山斗爲文章操紙立就疾速如神似不經意辭意俱到若刻意而爲者庸聰明絕人於經史一覽輒記家貧無書每借於人覽畢輒還平生不忘少遊國學有一生新得元朝文選對策寶而秘之不示於人庸知而借之生不許庸更請許借三日與之庸至期乃還曰何用此冊爲生以爲戲言耳後生讀對冊庸臥其傍誦一篇不錯一字生大驚更試他篇終前後集皆然庸事父母至誠其母病苦庸日夜憂泣不解帶自作文以禱之病尋瘳丁父憂哀毀夜則號哭晝則擔土成墳性勁直清儉嘗奉使上國在會同館不出房外禮部官見之曰宰相不識賣買眞賢相也平常戒三子曰吾以不才過蒙上恩無絲毫報但不欺君一事自無愧矣汝輩觀吾志聽吾言念茲在茲不喜巫覡非其鬼不祀臨終戒子弟不作佛事平生操守如此然其性褊急無威重短於經濟才世以此短之及卒輟朝三日官它葬事諡文貞道德博聞文清白守節貞子聃恥耳 (世宗實錄)

## 譯 文

世宗六年(갑진)六月辛未에 판우궁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로 치사한 조응(趙庸)이 졸하다. 영양도 진보현(眞寶縣) 사람이다. 고려 갑인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교주부삼사도사(典校主簿三司都事)에 제수되고 외방에 나가서 세림부판관(鷄林府判官)이 되었다. 부(府)에 미수된 국공(國貢)이 많아서 관리와 백성이 폐를 입었다.



지키는 바가 이와 같았다.

그러나 그 성품이 편벽되고 급하여, 위엄과 신중함이 없었고 경제(經濟)와 재주 있게 처세(處世)를 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단점(短点) 때문에 돌아가신 후 나라에서는 삼일간 조회를 거두고 장례를 도왔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라 내렸는데 도덕박문을 문으로 칭백수정을 정으로 한 시의(諡意)이며 아들(子)은 담치(聃恥耳)이다.

#### 4. 文貞公諱庸致祭文

賜祭于卒判右軍都摠制府事致仕趙庸其敎書王若曰敷敎興化固有資於碩儒崇德尊賢宜特加以恤典惟卿山川間氣奎璧英精既研討於經書又博覽於子史識通古今學際天人其談論淵淵乎心性之源其訓誨表表乎忠孝之道展也文盟之主允爲儒者之宗聖祖簡智昭考寵眷敷歷華秩展布雅懷由窮理而智益明隨任使而職斯舉予初嗣服卿未至哀方臨泮宮之時首講洪範之義敷陳至論啓沃良多遂進資於崇班願詳延於舊德胡天不憖俾予興哀爰命禮官式陳薄奠於戲死生之故卿既知理數而無疑恩禮之施予敢以幽明而有間

#### 譯 文

전 판유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였던 조옹(趙庸)에게 제사를 내려는데 그 교서에 「왕은 말하고 노리고 화를 선포하고 문화를 일으키는 데 지실로 석유(碩儒)에게 힘입은 것이요. 덕있는 이를 높이 주고 어지러운 근대하는 데에는 마땅히 특별한 홀전(恤典)을 더할 것이다.

경(卿)은 산천의 정기를 타고 났고 규벽(奎璧)의 정기라 이미 정서를 얻고 하였고 또 자서(子書)와 사기

(史記)를 널리 읽어 식견을 높이고 금을 통하고 학문을 하는 하들과 사람의 이치를 통하지라. 그 가운데는 심성이  
 높고 그 가르침에는 충효의 도리를 위주 하였으니 실로 문단의 주장이 되었고 유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성  
 조(聖祖)께서 가려서 알아 주셨고 소고(昭考)께서 총애 하셨음으로 빛난 관직을 많이 역임하여 품었던 뜻을  
 펴도다. 이치를 궁구함으로 지혜는 더욱 밝았고 벼슬을 맡아서는 직분을 잘 실행했다. 내가 처음 계승하였을  
 때에도 경이 노쇠한 지경에 이르자 아니하여서 마침 반강을 거동 하였을 때 처음으로 흥반(洪範)을 강의하여  
 지금한 논설을 펴서 열어주고 알려주것이 참으로 많았다. 그 람으로 품계를 승반에 올려주어 노상하고 덕이  
 있는 이에게 자상히 배우기를 원하였더니 하늘이 어찌 아껴주지 않으며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가 이에 예  
 관을 명하여 약소한 제물을 진설하게 하노라 아아 사생(死生)은 경(卿)이 이미 그 이치를 알아서 의심이 없  
 을 것이나 은총과 예절을 베푸는 것을 내 어찌 유명의 나감으로 달리함이 있겠으리 하다.

# 5、肅魏公諱胖奏聞使記

洪武二十五年七月十六日左侍中臣裴克廉右侍中趙浚等五十二人知天命之所在察人心之所歸  
 倡以大義百官父老不謀而同合辭勸進殿下讓至再三衆志彌固勉登寶位市不易緯兵不血刃會朝  
 清明民乃大悅『即遣知中樞臣趙胖奏聞帝乃詔曰三韓之民既尊李氏民無兵禍人各樂天之樂乃  
 帝命也未幾中樞使臣趙琳繼還又勅國更何號星馳來報即命藝文館學士韓尚質奏請國名賜朝鮮  
 之號』且曰體天牧民永昌後嗣具獲天人上下之助如此誠所謂應五百年而興者也

(太祖實錄)

## 譯 文

홍무(洪武) 25년 태조(明太祖)의 연호(二十五年) 태조 1년 1392년 7월 16일에 좌시중(左侍中) 배극렴

(裴克廉)과 우시중(右侍中) 조준(趙浚) 등 五十二명이 천명의 소재와 민심의 돌아가는 바를 알고 때의를 주창하니, 백관 부로(百官父老)들은 서로 모의한 일도 없었지만 마음의 되어 입을 모아 왕위에 오르기를 권하였다. 전하에서는 두세 번 사양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의 뜻이 더욱 굳은 것을 보고 억지로 보위(寶位)에 올랐다. 그러나 자자에는 가계를 바꾸는 소동이 없고, 병기에 피를 묻히는 일 없이 온 천하가 하루아침에 밝아지므로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즉시 지중후(知中樞) 조반(趙胖)을 보내어 명나라 조정에 알라니, 황제가 곧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삼한(三韓)의 백성들이 이미 이씨(李氏)를 높이고, 백성들은 병화(兵禍)가 없이 사람마다 제각기 하등의 주는 즐거움을 즐기고 있으니 이것은 곧 상제(上帝)의 명령이로다.』 하였다. 얼마 안 되어서 중추사시(中樞使臣) 조림(趙琳)이 되어 돌아오니, 그 편에 황제가 또 조칙하기를,

『나라 이름을 무엇이라고 고쳤느냐. 급히 보고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예문관 학사(藝文館學士) 한상질(韓尙質)에게 명하여 국명(國名)을 주청하게 하니, 황제가 「조선(朝鮮)」이라는 이름을 내리면서 이르기를,

『하나라에 법만아서 백성들을 기르고 길이 후손에게 이어가며 영화를 누리라.』 하였다. 이처럼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백성의 도움을 얻었으니 참으로 오백년 만에 한번씩 나오는 왕자의 운수를 받았다고 하겠다.

## 6. 肅魏公諱胖封勲王旨

洪武二十五年(一三九二)十月

王若曰有非常之才然後有以成不世之功此人君之所當厚報而勸勵者也卿以魁奇之略經濟之才常懷貫日之忠實有回天之力剛足以處大事勇足以決大疑再經危險而能致其身歷忤權奸而不屈其志博通古今之變雅合將相之材其在前朝奸臣之徒潛圖不軌陰遣私使請動 天兵顛覆國家卿於是時入覲 天庭對論禮部抗言曲直明辨是非秉臣節於險阻之間回帝心於危疑之際遂令中國復脩舊好羣奸擢沮邪謀自止豈惟一時宗社之安實爲萬世生靈之福泊乎王氏之季狃於近功暗

於大義罔念天位艱難之道不思人心離合之幾忠義元功反黜於遠方逋逃多罪是任於臚仕賞罰錯戾紀綱凌夷災異屢現而罔有悛心人民離散而曾不悔悟國有垂亡之勢天無扶佑之心於是門下左侍中裴克廉門下右侍中趙浚等上承天心下順民意首倡大義推戴寡躬卿相與參謀俾成大業即奉使命入奏 帝聰能將專對之才特被俞音之旨萬里之遠三月而還乃令寡昧之資得釋虞憂之慮一國相慶萬世有辭是卿之功益而重矣宜用崇加三代祖考宥及永世子孫立閣圖形鐫碑記績錫之田土申以奴婢仍賜金帶一腰段子二疋絹子七疋至可領也卿其膺褒賞之命益勵忠義之誠茲施教示想宜知悉

(封爵王旨御筆至今  
藏于家已卯諸帝照)

譯 文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상한 재주를 가진 다음에 세상에 없이는 공복을 세움이 있나니 이것을 임금의 마땅히 후하게 보답하고 권장해야 할 것으로다.

경(卿)은 뛰어난 남다른 지략(智略)과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제하는 재주를 가지고 항상 해를 깨닫는 충성심이 있었으니 실로 천운(天運)을 되돌리는 힘이 있었도다.

가장(剛直)한 충신(忠臣)은 일을 처리할 만하였고 용기는 큰 의문(疑問)을 결단(決斷)하기에 충분하여 두 번이나 위험한 처지를 겪으면서도 몸을 아끼지 않았고 여러번 권신(權臣)과 간신(奸臣)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도다.

박학하여 고금(古今)의 변화(變化)에 통달하였고 고상하여 장군과 재상의 재목으로 적합하였으니 전조(前朝)에 간신(奸臣)의 무리가 몰래 반역(反逆)을 도모하고 은밀히 사사로히 사자(使者)를 보내어 충신(忠臣)을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顛覆)하려 하였는데 경(卿)이 이 때에 충신의 조정(朝廷)에 들어가 예부(禮部)와 대론(對論)하여 곡직(曲直)을 따져 말하고 시비(是非)를 밝혀 험난(險難)한 가운데에서 신하의 절개를 지키고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때에 황제의 마음을 돌려 드디어 종국으로 하여금 예전대로 다시 수교(修交)를 맺게 하였으니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못된 음모는 자절로 그쳤도다. 이것이 어찌 다만 한 때 종묘 사직을 편 안케 했을 뿐이리오. 실패로 만세(萬世)토록 백성들의 복(福)이로다.

고려왕씨 말엽(末葉)이 되자, 눈앞의 작은 공(功)만을 좋아하고 대의(大義)에는 어두워 임금이 자리의 어려움 도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인심(人心)이 떠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기미(機微)를 생각지 아니하여 충의를 듣고 공이 있는 자를 도리어 원방(遠方)으로 쫓아내고, 도망쳐 다니는 죄 많은 자를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니 상(賞)이 어지럽게 뒤집히고 기강(紀綱)이 무너졌도다.

재앙과 이변이 여러번 나타났어도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였고, 백성이 떠나 흩어졌어도 위유치지 아니하였. 다. 나라는 망하는 형세로 되어 가고 하늘이 도우려는 마음이 없어졌도다.

이 때에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裴克廉)과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 조준(趙浚) 등이 위로 천심(天心)을 받들고 아래로 민심을 따라 먼저 대의(大義)를 주장하고, 과인(寡人)을 추대하였도다. 경(卿)은 그들과 더불어 계획하여 대업(大業)을 이루게 하였으며, 곧 사명(使命)을 받들고 종국으로 가 황제에게 아뢰어 호로 단번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특별히 좋은 말씀의 교지(敎旨)를 받아 만리(萬里)나 되는 먼 길을 십달만에 돌아와 덕이 적고 우매(愚昧)한 나로 하여금 그심 직정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온 나라가 서로 경하(慶賀)하고 만세를 두고 칭송하리로다.

이런 경의 공이 더욱 크니 마땅히 3대의 조상에 게 벼슬을 높혀주고 은혜가 영원토록 자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며 기린자를 세우고 형상을 그려 봉안하고, 비(碑)를 세워 공적을 기념하며, 전토(田土)와 노비를 내려 주고 또한 금대(金帶) 하나와 단자(段子) 금히를 두 번 단 두 필 견자(絹子) 보통 일곱필을 내리니 물건이 도달하는 말은 것이 가하니라.

경(卿)은 포상(褒賞)하는 명을 받고 더욱 충의의 지성심을 힘쓸지언다.

이에 교시(敎示)를 베풀니 그 뜻을 마땅히 잘 알아 주기 바라노라. (홍무왕지(封爵王旨)의 어필(御筆) 지금까지 집에 간해지고 있다.)

洪武二十五年(一三九二)十月